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금융시장과 IT의 역할

주연순^a 한재민^b

^a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Tel: +82-3290-1933, E-mail: ysjo@bok.or.kr

^b C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Tel: +82-3290-1621, E-mail: jaemin@korea.ac.kr

Abstract

As business environment becomes dynamic, complicated, and networked, viability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firm itself but also for its partners. It is needed a broader view to understand and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an organization, which is defined as the business ecosystem view.

In this research Korean financial market is to be defined as a business ecosystem. The Korean financial market consists of Bank of Korea as the keystone, a number of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s flagship entities, and other members in the ecosystem. Since dynamic interactions among members of the ecosystem are done through IT, the financial ecosystem's competitiveness is based on IT competence.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a new view of business ecosystem o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structure and the role of IT to enhance the healthiness of financial ecosystem.

Keywords:

기업생태계, 한국금융시장, IT역할

1. 생태계로서의 한국금융시장

2007년 8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는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카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merica Home Mortgage Investment)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연이어 증권시장에 투자한 대형 투자회사들의 손실이 부각되면서 전세계 금융기관으로 서브프라임 부실채권의 손실이 전가되어 신용경색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글로벌화된 비즈니스 환경하에서는 경쟁의 차원이 더욱 복잡해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쟁의 주체들은 개별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 혹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신용경색이 한국금융시장을 비롯한 전세계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개별기업의 경쟁력은 과거 원가나 품질 등과 같은 개별기업 단위의 경쟁 요소는 물론 파트너, 고객,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보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많은 금융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 개인, 국제환경 등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구성하고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금융시스템의 중심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 즉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한국은행법에 정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까? 그리고 IT(Information Technology)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경쟁, 공존, 공생,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한국금융시장을 생태계의 관점으로 볼 때 생태계의 중심자로서 한국은행은 한국금융시장 전체를 생태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생태계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고유한 역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IT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IT는 인체의 신경망이나 혈류처럼 생태계 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의 매개로서 이를 강화하는 것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글로벌 경제에선 외부의 위험은 늘 상존한다. 이런 위험과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IT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왜 기업생태계 관점이 필요하며, 또한 IT의 역할은 무엇이며 IT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함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금융시장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기업생태계와 IT

기업생태계란

James F. Moore는 체계적인 접근으로 전략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단일 산업의 한 구성원이 아닌 다양한 산업간 기업생태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6]. Iansiti 와 Levien은 생태계란 “많은 수의 느슨하게 상호연결된 참가자들이며 이들은 상호 효율성과 생존을 위해서로 의존한다”고 했다[8]. Abe 등은 “기업 생태학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 흐름을 바라보는 생태학적이고 전체론적인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7].

성공적인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며[3], 실제 기업은 자신이 속한 기업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명하고 전체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6].

Peltoniemi는 기업생태계에 속한 개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호연결은 생존을 위한 경쟁과 협력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반하며 서로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 개체의 실패가 다른 개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9]. 기업생태계는 개체의 변화에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생태계의 다이내믹스가 중요하다고 했다[10].

자연생태계에 비해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과 생태계의 참가자들이 지능을 갖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업생태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8].

기업생태계에서 IT 역할

Iansiti와 Levin에 의하면 생태계에서는 경쟁자, 고객, 파트너, 공급자 등에 대해 역량이나 안정적 지위를 가지는 것과 생태계내 다이내믹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8]. Tranriverdi는 기업생태계에서는 기업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간 지식, 정보를 포함한 자원의 흐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IT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5].

Rabkin과 Bradford에 따르면 기업생태계에서는 기업이 외부의 자극을 빠르게 감지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향상되어야 한다고 했다[1]. 또한 Sambamurthy 등에 따르면 IT 역량이란 ‘IT 자원’과 ‘능력’, 그리고 ‘IT 기반의 혁신’을 포함하는 말이며, IT 역량은 기업의 민첩성(agility) 확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을 창출한다고 하였다[11]. Henderson과 Venkatraman에 따르면 IT가 기업의 전략 수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략 수립을 구체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4].

3. 왜 생태계 관점인가

경쟁력의 새로운 차원

지금까지 전략 및 경쟁력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급사슬(Supply chain), 협력(Partnership), 가치 사슬(Value chain) 등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쟁의 차원이 더욱 다양해지고 경쟁요소의 차별화가 어려운 오늘날의 경쟁환경에서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개별기업은 물론, 그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과 시장의 다양한 개체들과의 공존과 공생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기존의 개념으로는 산업이나 시장 내 역할이 다양한 개체들 및 그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의존성, 그리고 그 개체들의 공동운명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기업전략에 대한 새로운 사고로 기업생태계의 개념이 제안되었다[12]. 또한, 기업생태계는 개별기업이 창출하지 못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10].

한국금융시장에서는 시장 참가자(중앙은행,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들과 국내외 외부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시장 참가자들은 고객유치와 매출 증가를 위해 경쟁하면서도 시장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 금융기관이 부도나면 금융시장 내 다른 참가자들도 생존을 위협받고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까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생존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공동운명체이다. 이러한 한국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번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계 관점이 필요하다. 생태계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간의 경쟁(competition), 공생(symbiotic relationship), 선택(selection), 그리고 공진화(co-evolution)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핵심종(keystone species)과 깃대종(flagship species)

핵심종이란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을 일컬으며, 깃대종은 환경보전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생태계 여러 종 중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물을 말한다[2]. 일반적으로 핵심종은 먹이사슬의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생태계의 관점에서 본 한국금융시장에서의 핵심종은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으며, 깃대종은 은행, 증권회사 등과 같은 주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깃대종의 건강성은 생태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직결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BIS비율(부채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재무건전성에 비중을 두고 감독하는 것 역시 바로 깃대종의 건강성이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변형전략

Intensity와 Levin에 따르면 기업생태계 내에서 각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은 기업의 종류와 추구하는 바에 따라 핵심종 전략, 기회공략자 전략, 지배자 전략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는 기업이 맺고 있는 관계의 복잡성 정도와 혁신과 변화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8]. 환경변화가 지속적이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반면, 관계의 복잡성은 낮은 경우 기업은 전체 비즈니스 중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문으로 경쟁하는 기회공략자 전략이 유효하다[8].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하면서 다른 기업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핵심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8].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와 같이 자산들을 파트너들과 공유함으로써 기업생태계의 전반적인 생명력을 높이는 전략이 이에 해당된다. 핵심종은 플랫폼을 창출하여야 하고, 그들 자신의 가치와 다른 기업들의 가치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8]. 다른 기업들과 맺은 관계가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어 성숙한 산업환경에 속해 있다면 지배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8]. 지배자 전략은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추구한다[8].

4. 한국금융시장 생태계

금융생태계 형태

한국금융시장 생태계를 간단히 금융생태계라 하자. 금융생태계는 금융시장 구조적 관점과 역할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금융시장 구조 관점에서 본 금융생태계는 그림 1과 같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전통적 금융시장(단기 금융시장, 채권과 주식의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13]. 특히, 단기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수행되는 대상시장이며 정책 효과의 파급되는 시발점이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금리를

변동시키며 이는 장기금융시장금리, 통화량,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실물경제와 물가의 변동을 가져온다[13].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재정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간 상호연계성도 높아짐으로써 통화정책효과와 파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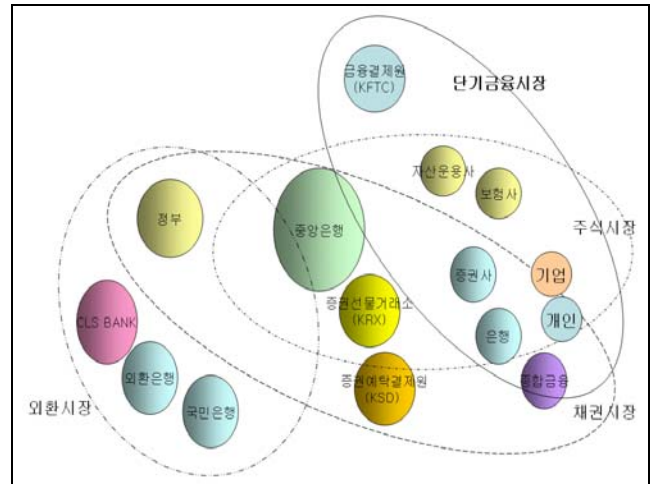


그림 1-한국금융시장 구조 관점에서 본 생태계

다음으로 수행역할 관점에서 본 생태계는 그림 2와 같이 개념적인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된다. 최상위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정한 화폐의 발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시스템의 안정,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지급결제체계의 운영관리,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주변에 깃대종 기관들이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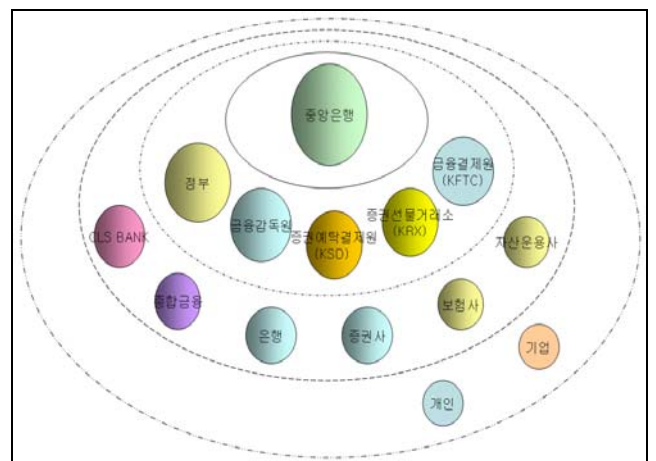


그림 2-수행역할 관점에서 본 생태계

금융생태계에서의 IT

생태계 내에서 IT는 개체 자신을 위한 IT와 개체간의 관계를 위한 IT로 구분이 가능한 데, 본

연구에서는 개체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IT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중앙은행은 한국금융시장 생태계에서 정보 수집 및 공유, 트랜잭션 처리 등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금융생태계에서의 IT 역할은 주로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수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태계 내 개별기관들의 건전성을 파악함으로써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금융시장에서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예로는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의 시스템은 한국은행이 구축한 시스템이며, <표 2>의 시스템은 금융생태계 내의 다른 기관들이 구축한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생태계 내에서 한 조직이 아닌 생태계 구성원 다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에코웨어(Ecoware)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표 1 - 한국은행이 구축한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가동 시기	기능	사용자
BOK-wire	1994. 12	지급결제시스템	금융기관
국고금 실시간 이체 시스템	2003. 1	국고금 지급의 실시간 이체	국고수납 대리점 금융기관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1997. 12	한국은행 및 금융 정보 수록	대국민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2004. 1	경제통계 정보 수록	대국민
경제교육 홈페이지 (www.bokeducation.or.kr)	2006. 9	어린이, 청소년 등 경제교육 정보 수록	대국민
외환동시결제 시스템	2004. 12	원화/외화간 지급과 수취 동시처리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전산정보국 및 홈페이지

특히 BOK-wire는 그 중요도나 파급효과 면에서 한국금융시장에서 최종적인 지급결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123개의 금융기관(국내은행, 외은지점, 증권사, 종금사, 기타)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일 평균 8000건의 지급결제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14].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에코웨어는 약 20개나 된다.

금융생태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에코웨어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따른 소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에코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다시 그 소 생태계의 핵심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 한국금융생태계의 지급결제시스템

구분		운영자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8)	한은금융망	한국은행	
	어음교환시스템	금융결제원	
	은행 공동망		다행환
			전자금융
	채권장외시장결제 시스템	증권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결제 시스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결제 시스템		
선물시장결제시스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11)	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은행 공동망		CD
			CMS
			B2C 전자상거래
			B2B 전자상거래
			전자화폐
			직불카드
	지방은행		
	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사	
	국내은행간 외화자금 이체시스템	외환은행, 국민은행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출처>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보고서, 2007.6

한국금융시장 생태계의 경쟁력, 즉, 건강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IT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생태계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생산성(Productivity), 강건성(Robustness), 기회창조성(Niche creation)을 제시하고 있다[8]. 여기에 글로벌 경제에서는 기업이 외부의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되므로 민첩성(Agility)도 건강성 지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Rabkin과 Bradford 역시도 생태계에서 외부자극을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민첩성을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1].

생산성이란 기술이나 다른 혁신의 원재료를 저비용의 새 제품으로 효과적으로 변환시키는 네트워크 능력을 말한다[8]. 생산성의 간단한 측정 방법의 예가 ROI(Return on Invested capital)이다. 굳이 ROI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양의 금융거래는 IT의 지원 없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강건성이란 예측할 수 없는 기술변화와 같은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8]. 강건성이 있는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예측능력이 있고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준다[8]. 예를 들면, 에코웨어와 같은 생태계 내 시스템들이 장애나 중단 없이 가동됨으로써 금융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BOK-wire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가 사전에 파악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위기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기회창조성이란 다양성에 관한 것이며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생산적인 혁신을 하기 위한 잠재력을 말한다[8]. 가치 있는 새로운 기능이나 기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의미 있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생태계 능력이다[8]. 간단한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이 보안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함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많은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고객은 오프라인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새로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IT의 도움으로 새로운 금융거래 방법과 고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민첩성이란 외부의 위협과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1]. 글로벌 환경에서 전세계 시장의 다이나믹한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에 실시간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외부 환경의 동향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야 금융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예측하기 위하여 IT는 필수이다. 생태계의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 역량이 선행되어야 한다.[11].

금융생태계 플랫폼을 구성하고 어마어마한 금융거래를 처리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등 IT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위협을 보다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생태계의 생존과 번영을 지원한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논하면서 IT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하여 IT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은행의 핵심종 역할과 IT

생태계 지원

한국은행은 한국금융시장 생태계의 중심에서 생태계 구성원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IT 역량을 강화하여 생태계 전체가 번영하는 핵심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전체 생태계가 건강성을 유지할 때 중앙은행의 경쟁력 또한 높아지는 선순환을 통해 더욱 건전한 한국금융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IT자원의 경우 표준화를 통해 공유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개별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 경제적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자치성(Autonomy) 강화

금융시장을 생태계로 본다면 통제 보다는 자율성을 통해 생태계 스스로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행은 한국금융시장의 핵심종인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생태계의 핵심종으로서 생태계의 자율적인 발전과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IT는 한국금융시장의 자율적인 생존능력(self-organizing capability)를 증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이나믹 역량(Dynamic capability) 강화

IT는 한국금융시장이 국내의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은행의 다이나믹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와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전략 등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공유가 요구된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축적하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외부시장의 위협과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의 협약 등 한국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 등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BIS 비율을 강화한 신 BIS 협약이 2007년부터 시행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적용에 따른 금융생태계의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IT는 활용될 수 있다.

6. 결론

IT 역량(Competence) 향상

IT 역량은 'IT 자원'과 '능력(Capability)' 과 'IT 기반의 혁신'을 포함하는 말이다. IT 역량은 디지털업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민첩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했다[11]. IT의 역량강화로 외부의 불확실성과 잠재된 위험부터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IT 역량의 구성요소는 'IT 투자의 정도', 'IT 인프라의 품질', 'IT 인적자본', 'IS특성/비즈니스 파트너쉽'의 속성으로 이루어진다[11].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내외부 위험 및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가능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IT 투자, IT 인프라의 개선, IT 인적 자원의 확충 및 자질 향상, 개발업체와의 유대관계 강화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령,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에코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에코웨어에 대한 투자뿐만 중앙은행 내부 IT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급변하는 외부시장으로부터의 동향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 정보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디지털경제와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한국금융시장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IMF사태를 맞아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핵심종으로서 한국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생태계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한국은행 단독의 경쟁력이 아닌 금융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생태계 번영 전략과 IT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경영전략과 IT가 전략적으로 하나의 선상에 있을 때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다고 하였다[4]. 생태계 관점에서 한국금융시장이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더 건강하고 번영하기 위한 전략의 중심에서 IT의 역할이 기대된다. 중앙은행 조직만을 위한 IT가 아닌 한국금융시장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IT의 표준화와 통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 참가기관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고 파급효과가 큰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IT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Barry Rabkin and David Bradford, (2002), "Marketplace as Ecosystem: The Compelling Role of Technology", *LOMA Resource*, August, pp. 16-20

[2] Daniel Simberloff, (1998), "Flagships, umbrellas, and keystones: Is single-species management passé in the landscape era", *Biological Conservation*, Vol 83, Issue 3, pp 247-257

[3] David Wheeler, Kevin Mckague, Jane Thomson, Rachel Davies, Jacqueline Medalye and Marina Prada, (2005), "Creating Sustainable local enterprise network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Vol 47, No1, pp. 33-40

[4] Henderson, J.C. and Venkatraman, N., (1993), "Strategic Alignment: Leverag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transforming Organizations", *IBM systems journal*, Vol. 32, No.1, pp. 4-16

[5] Hueseyin Tranriverdi, (2006), "Performance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synergies in multibusiness firms", *MIS Quarterly*, Vol.30, No. 1, pp. 57-77

[6] James F. Moore, (1993),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vard Business Review*, May-june, pp.75-86

[7] Joseph M. Abe, Patricia E. Dempsey and David A. Bassett, (1998), *Business Ecology-Giving your organization the natural edge*, Butterworth Heinemann

[8] Marco Iansiti and Roy Levien, (2004), "Strategy as Ecology",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pp. 1-10

[9] Mirva Peltoniemi, (2006), "Preliminary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business ecosystems", *Emergence:Complexity and organization*, Vol.8, No. 1, pp. 10-19

[10] Ron Adner, (2006), "Match your Innovation Strategy to your innovation Ecosystem", *Harvard BusinessReview*, April, pp. 99-107

[11] Sambamurthy V., Bharadwaj A. and Grover V., (2003), "Shaping Agility through Digital Options: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IT in Contemporary Firms", *MIS Quarterly*, Vol. 27, No. 2, pp. 237-263

[12] Sanjive Gossain and Gajen Kandiah, (1998), "Reinventing value: the new business ecosystem", *Strategy & Leadership*, Vol.26, No. 5, pp. 28-33

[13] 한국은행, (2006),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14]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http://www.bok.or.kr)